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삼지연시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시건설사업이 결속되는것과 관련하여 3단계 공사실태를 료해하시기 위하여 삼지연시를 현지도하시였다.

삼지연시를 혁명의 성지답게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로 전변시키시려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3단계로 나누어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여 온 삼지연시건설사업이 올해로 결속되게 된다.

삼지연시 읍지구완공에 이어 3단계로 읍 주변지구들과 농장들을 일신시킬데 대한 당의 구상과 방침에 따라 백두산밀영동, 리명수동, 신무성동, 5호물동동, 포태동과 중흥리, 홍계수리, 소백산리, 백삼리, 보서리, 통신리를 비롯한 삼지연시의 10여개 동, 리들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공공 및 생산건물, 교육시설, 상수도계통, 도로와 원림특화, 송전선계통을 건설하는 방대한 공사가 결속을 앞두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3단계로 건설한 백두산밀영동지구, 리명수동지구, 포태동지구의 주택들과 교육시설, 문화후생시설들, 담사속영소와 중흥농장지구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대상들을 현지도하시면서 삼지연시건설공사정형과 도시경영실태, 농사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건설대상들이 우리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지방건설에 관한 방침적요구에 맞게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과 조형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시건설대상들마다에는 당의 웅대한 구상과 결심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고 관철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고결한 충성심과 강인한 의지, 진한 땀방울이 스며여있다고 하시면서 불리한 북방의 환경속에서도 방대한 공사를



중단없이 힘있게 추진해온 건설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읍지구뿐 아니라 시안의 여러 지구들과 농장들이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전변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계속 강조했지만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태양의 성지인 삼지연시를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인민과 세대대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혁명적의무이라고 하시면서 송고한 이 투쟁을 통하여 수령께 영원히 충성하고 수령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과시되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근본담보가 더욱 확고히 마련되였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4년간에 걸친 삼지

연시건설투쟁속에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불가항력적위력과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자력번영, 자력부강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철석같은 의지와 자신심, 자립적발전가능성이 실증되였다고 하시면서 당의 결정과 정책을 빛나는 현실로 구현한 삼지연시건설자들과 지원자들과 전국의 인민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시건설과정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경험과 기준은 우리당의 지방건설정책을 옳바른 방향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명확한 지침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는 지방이 변혁하는 새로운 시발을 열어놓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시건설에서 축적한 우수한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시켜 지방건설발전과 문명한 전사회건설

을 다그치는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한가지 하시면서 이러한 우리 당의 웅대한 건설정책을 편향없이 정확히 추진해나가자면 지방의 건설력량과 설계력량을 급속히 강화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 현시기 가장 절박하게 나서는 선결적 문제로, 전략적과업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도, 시, 군들에서 건설과 설계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 대책과 국가적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시공단위들의 전문수준을 제고하고 건설감독기관들의 역할과 권능을 높여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중흥농장지구에 건설된 특색있는 농촌문화주택들과 리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면서 한쪽의 그림같은 농촌진흥의 표준단위라고 말할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시건설은 지방인민들을 문명한 물질문화생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혁명의 출발점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전변된 삼지연땅의 인민들이 우리 당의 은덕을 노래하며 몹시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들이 반기는 보람있는 일을 해냈다는 뿌듯한 마음을 금할데 없다고, 인민들의 목소리가 곧 삼지연시건설사업에 대한 총평으로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거듭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시건설사업이 당에서 구상하고 의도한대로 훌륭하게 진행되였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고향땅, 백두산이 솟아있는 정든 고장에서 문명하고 훌륭한 문화생활을 누리게 될 전체 삼지연시인민들의 행복과 복리를 따듯이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제 5 차 3 대 혁 명 선 구 자 대 회 개 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대 회 참 가 자 들 에 게 강 령 적 인 서 한 을 보 내 시 었 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총로선인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건인불발의 대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가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대회에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앞선가고있는 3대혁명기술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도, 시, 군 당위원회 책임일꾼들, 성, 중앙기관 당책임일꾼들, 무력기관 정치일꾼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과 관계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자》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한에서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시기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소집한 당중앙의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총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간개조의 선구자, 집단적혁신의 주인공이 되어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 크게 공헌한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3대혁명기술들,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조선로동당의 3대혁명로선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과 3대혁명의 거대한 의의와 불멸의 생명력에 대하여 밝히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의 3대혁명화이자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며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리상사회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엄으로 으며 온 사회를 3대혁명화하기 위한 투쟁과업과 구체적인 실천방도들을 천명하시었다.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과 3대혁명 선구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구절구절 맥박치는 서한은 대회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키었다.

대회보고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하였다.

보고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은 조선로동당의



그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을 조강력한 무기로 사회주의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사업이 당의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지지 못하고있는 일련의 결함들과 그 원인에 대하여서도 분석되었다.

보고자는 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현존하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돌파하는 묘술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사업을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해당 단위발전의 실제적인 추진력으로 되게 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열의 속에 대회는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령도 최강의 자위적국방력을 억척으로 다지시어

위인이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오늘 공화국이 우리 국가에 일주의 시대를 전면적으로 펼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설수 있는것은 철세위인께서 안아오신 세상을 놀래

3 월 전 원 회 의

지금으로부터 8년전 공화국에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은 세계가 주목한 이 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로선이 제시되었다.

당시 적대세력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협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날뛰고있었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전야의 엄중한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이 제시되자 적대세력들은 두가지 건설을 병진시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헐뜯었다. 당시 세계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지키는것만도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이 이번에 제시된 새 로선을 과연 관철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의문의 시선을 보내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다. 하지만 오늘도 지구상 도처에서는 무장충돌과 전쟁의 화염이 계속

우는 눈부신 기적적승리들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 땅에서는 이룩된 기적적승리들, 그 가운데는 전쟁억제력을 강화한 공화국의 병진로선이 안아온 경이적인 패승도 있다.

지혜와 묘술도 가르쳐주시었다.

이렇듯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있어 국방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3.18혁명》의 패승이 마련되고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대륙간탄도미사일장착용수소탄 시험의 완성성공에 이어 《11월대사변》을 맞이하여 세계에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 올라설수 있었다.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은 《11월대사변》이 이룩된 력사의 그날 만리창공에 새겨진 장쾌한 비행운을 잊지 못하고있다.

주제106(2017)년 11월 29일 공화국에서는 대지를 박차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이 날아올랐다. 이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하였으며 전략무기체계의 사명에 맞게 전투환경에서의 믿음성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확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단번성공에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선언하시었다.

전쟁 공화국에서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불과 4년만에 국가핵무력완성이라는 력사적대업이 이룩될수 있는것은 현재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운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생결단의 헌신과 로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화선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라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끄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국방력강화의 길을 앞장에서 걸으신 그이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를 공화국인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새무기시험사적이 진행될 때마다 위험천만한 사격현장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린 공화국인민들이다.

하지만 그이께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위해 바치신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다는 알지 못하고있다.

주제106(2017)년 2월의 어느날에는 먼동이 터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고, 한번 해보자고, 신심을 안고 발사되기로 진술하라고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등을 떠밀어주시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력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었고 또 언제가는 위험천만한 현장에까지 나오시어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시험출시시험과정을 보아주시고 성공이 너무도 기쁘시어 국방과학자를 업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렇게 새무기개발을 위해 그이께서는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시험사격장으로, 새무기조립장으로 나가시어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성공으로의



민족의 영광과 향토로 향하는 10년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2)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으로

주제101(2012)년 3월 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판문점을 사찰하시었다. 당시 그의 판문점시찰소식은 세상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봄이 왔건만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엔 12월의 차디찬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가시면 안된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영구차를 눈물짓어 따라서도 약속하게 내려쬐어는 흰눈우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솜옷을 주저없이 벗어 갈아드셨던 이 나라 인민들이었다. 해는 바뀌어도 민족의 어머니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은 가시여지지 않고 있었다. 인민들의 마음이 이리할진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으랴.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문제를 먼저 생각하시며 그처럼 위험천만한 판문점으로의 시찰길에 오르셨기이다. 원래 판문점은 바람에 가랑잎이 흩날리어도 저도 모르게 방아쇠에 손이 가는 최대의 열점지역이다. 더우기 당시는 남조선에서 대규모의 북침공격연습인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엄청난 도발사건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던 준엄한 시기였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단호히 끝장낼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기록한 령도의 발자취는 력사의 땅 판문점에도 어려어있다.

역설 기상의 분출이었다. 하기에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물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판문점경계속에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었다. -정말 결심이 단호하고 신념과 배짱이 강하신 백두산혈통의 장군만이 단행할수 있는 장거리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분명 환한 대낮에 판문각로데에서 생안경을 들고 바라보시는 사진을 남겼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동시에 공중분해되는것같았다. -청청하늘에서 섬팡이 일

보시던 배포유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 겨레는 백두산악과 같은 역센 담력, 기상을 지니신 령장의 모습을 보았고 그의 손길아래 무궁변영할 민족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린 분열과 대결의 상정은 이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판문점은 의제에 의해 반세기 이상이나 갈라져 사는 우리 겨레의 가슴속아픔과 불행이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절게 서려있는 곳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더해주시던 그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하신 영상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어려어있는 친필비를 먼저 찾으셨었다. 그때로부터 아홉해가 흘러 갔다. 잊지 못할 3월의 그날 판문점에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통일의지는 날이 갈수록 약탈해지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힘차게 전진하는 겨레의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해 주셨었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다시 첨예한 대결과 긴장국면에 처해있다. 북남합의를 어느정도라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외세의 반공화국적 대시업살책동에 맞장구를 쳐온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진정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록한 애국애족의 발자취와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력사의 땅 판문점과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오늘 우리 겨레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려나가고 있다.

온 겨레가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과감히 벌려나갈수 있는것은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 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재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내용이 담겨져있다. 우선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과 방도가 밝혀져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재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세의 간섭이 없는 단결된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 만큼 반드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재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선민족은 단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의 강토에서 반만년의 오랜 력사적기간 하나의 피줄을 순결하게 이어온 단일민족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처럼 대대로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오며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그런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은 없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결코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초래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외제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외제가 강요한 민족분열로 인하여 조선민족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헤아릴수 없이 크다. 오늘 조선사람치고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나온 력사는 통일만이 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천명하시면서 북남선언들을 무조건적으로 성실히 리행하는것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시었다.

북남선언들을 부계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북남선언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동을 받았다. 이러한 북남선언들이 제대로 리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가 오늘처럼 심각한 교착상태에 처하지는 않았을것이며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자적위업에서는 커다

란 진전이 이룩되었을것이다. 북과 남이 함께 채택한 공동선언이 한조항도 제대로 리행되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앞에서는 《화해》와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 돌아앉아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기인되

한 내성민주인사를 참된 애국의 길로 (2)

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를 걸고들고 지어 남들이 다 하는 상용무기시험까지도 《무력도발》이라는, 《위협》이라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니 하는 딱지들을 잔뜩 붙여놓고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공세에 적극 동조하면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진용술어》로 쓰고 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과 반통일세력들이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노린 대규모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이 광란

리영준선생은 날이 갈수록 민족을 위한 길에 무엇인가 바치고싶어하는 자기의 심정을 알아줄분은 오직 위대한신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는것을 확신하시었다. 하여 선생은 북반부에 있는 안창호선생의 누이동생 안신호를 통하여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에게 자기 의고충을 적은 편지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얼마후 북으로부터 기별을 받은 선생은 분계선을 넘어 해주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마중온 누이 안신호라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안신호가 류영준선생을 마중 나오게 된 사연은 이러하였다. 안신호가 가져다드린 류영준선생의 편지를 읽어보신 김정숙녀사께서 나쁜 놈들의 배타주의적책동에 격분해 표시하시고 그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변함없이 있다는것을 잘 알려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기께서는 류영준선생에게 보내는 회답편지를 길게 쓰지 않을터이니 안신생이 체험한 사실을 이야기해주면서 자신의 의도를 알려주는것이

라고 교시하시었다. 그런데 대해서도 전해주었다. 류영준선생은 류영준선생은 능력이 없고 나뉘워 해 한 일도 없는 자기에게 이렇듯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니 진정 그 고마움은 은혜로움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불라 눈물을 적시었다. 이날 선생은 민족주의겨주의 동생이며 진실한 그리스도교신자인 안신호가 공화국에서 높은 정치적신임을 받아 나맹간부로서 활동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들으면서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특히 아버지수령님께서 안신호를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선생들과 종교인들을 건국사업에 불리일으키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우리는

해외동포들속에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정책을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높아지고있다. 총련의 어느 한 초중고급학교에서는 얼마전 고등학교무상화재문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한편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일본총영사관앞에서는 조선학교차별을 반대하는가 시위투쟁을 벌려왔다. 미국화협 뉴욕, 우리 학교와 함께 하는 등포요인, 국제행동센터, 세계로동당 등 여러 단체들의 후원속에 35명

조선학교차별정책을 반대하여

의 시위참가자들은 조선어, 영어, 일본어의 3가지 언어로 된 《일본은 조선학교차별을 중지하라!》, 《제일조선학교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하라!》, 《일본정부의 인권유린을 규탄한다!》고 써서 횡단막을 들고 조선학교에 고등학교무상화와 유보무상화 제도를 즉시 적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위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가 시위투쟁을 벌려왔다. 6.15뉴욕위원회 김수부대표는 민족통일의 대장정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가 조선학교차별문제에 해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해결을 위하여 다음에는 더 조직적인 시위를 준비할 입장을 밝혀왔다. 본사기자 유금주

지 않았다. 우리 녀성들이 민족의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데 어찌 죄로 되느냐, 잡아가두려면 너명원장인 나민을 거둬놓고 다른 동무들은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다면 친필을 받들고 싶고 과감히 항거하며 애국의 지조와 절개를 굽치지 지켜 싸웠다. 그후 선생은 제주도4.3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토벌대》파견이 결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내었다. 《우리는 동족상잔의 죄악을 절대로 용인할수 없다. 우리는 전 녀성의 이름으로 이를 단연 배격하여 제주도 토벌을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인민들은 외군을 철폐하고 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민족적독립을 막아내야 할것이다.》 비록 길지 않은 성명이었지만 제주도의 《토벌》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남조선녀성들의 피라는 절규를 진하게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유금주



류영준선생



본사기자 유금주

《평등에 대한 열망》의 대결

남소수파들이 왜 심각한 혼란

머저리로 침묵하면 현자로 될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를 알고 말해야 하고 말할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의미일 것이다. 남조선 《국민의 힘》의 윤석열이 제 자신도 모르고 시도해도 모르는 그런 머저리에 속한다고 하겠다. 얼마전에 그가 의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북정책》 공약이라는 것을 내뱉었다고 하는데 듣느니 대결약답이요, 음미할수록 머저리라고밖에 달리 평할수 없는 것이다. 그의 공약인즉 현 당국의 《원칙이 없는 대북정책》을 《예측가능한 대북정책》으로 바꾸어 《북남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이른바 《한반도변환구상》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과제를 위한 《북의 개혁, 개방추진》과 미국과의 《포괄적전략동맹》 등 《한미동맹강화》이다. 거기에 따른 《안보》문제, 미국과의 《화장역지력강화》

문제 등 횡설수설하였지만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흡수통일》, 전쟁대결이다. 《흡수통일》과 전쟁대결은 그대로 이전 보수 《정권》들이 내외의 비난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죽을등살등 모르고 추진해온 《대북정책》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은 친박한 무당의 입김에 들떠 《신티프로세스》나 《통일대박》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것들을 《대북정책》으로 내놓아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세인의 조소와 비난거리로 되었고. 더우기 외세의 반공화국전쟁책동에 주종하여 《합수작전》, 《집무실타격》과 같은 최악의 대결방법, 망동을 일삼다가 남조선민심의 응당함 심판을 받았다. 윤석열이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전개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핵무기운용연습도 정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역설한것은 지난 보수 《정권》의 대결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선언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윤석열의 《대북정책》이란 《흡수통일》으로 몰두하다가 북남관계를 불과불, 철과 철의 대결로 몰아가간 과거 보수 《정권》들을 풍자하는 광적인 동족대결, 전쟁대결책동의 《설계도》라고 락인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할 때를 아는자는 침묵할 때를 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엄혹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최악으로 몰아가려는 윤석열은 머저리라는 말도 부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것들은 윤석열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시기와는 다른 그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도 되는듯이 광고하고있으니 까마귀 백번 목욕해도 백로될수 없는것처럼 《동족대결당》, 《반통일당》, 《북침전쟁당》의 본성은 변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가리켜 《아직 만나본적도 없는 북을 상대로 주먹부터 내미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일관된 대결공약》, 《북남관계의 현 경제국면을 더 험악하게 지속시킬수 있는 공약》이라고 규탄한것이 우연치 않다. 《북남관계를 박근혜정권시기와 같은 최악의 상태로 되돌릴 정치적화근덩어리》, 《리완용도 울고갈 투동매국노집단》. 이것이 《국민의 힘》이 밀어주는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들어서는 남조선 각계층에서 터져나오는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구해왔은 현 당국이 특별대책반을 내온다. 해외에서 노소수를 긴급수입한다 북다소등을 피우고있지만 당장 해소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있다고 한다. 남조선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수입원자재의 부족은 단지 노소수에만 한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은 마그네슘과 수산화리튬, 희토류와 같은 희유금속 등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경제가 해외에서의 수출중단으로 혼란에 빠져 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연유 판매소들에서는 노소수가격이 10배이상으로 뛰오르고 그마저도 판매하는 곳이 없어 수천, 수만여대의 물건기재들의 유행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연유차들이었으므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가 혼란상태에 빠지는 등 남조선내부가 이미극한에 빠져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최근 남조선에서 노소수의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노소수는 경유차들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제로서 경유를 리용하는 자동차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한다. 문제는 노소수의 원료인 산업용노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경제가 해외에서의 수출중단으로 혼란에 빠져 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연유 판매소들에서는 노소수가격이 10배이상으로 뛰오르고 그마저도 판매하는 곳이 없어 수천, 수만여대의 물건기재들의 유행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연유차들이었으므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가 혼란상태에 빠지는 등 남조선내부가 이미극한에 빠져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최근 남조선에서 노소수의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노소수는 경유차들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제로서 경유를 리용하는 자동차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한다. 문제는 노소수의 원료인 산업용노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경제가 해외에서의 수출중단으로 혼란에 빠져 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연유 판매소들에서는 노소수가격이 10배이상으로 뛰오르고 그마저도 판매하는 곳이 없어 수천, 수만여대의 물건기재들의 유행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연유차들이었으므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가 혼란상태에 빠지는 등 남조선내부가 이미극한에 빠져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최근 남조선에서 노소수의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노소수는 경유차들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제로서 경유를 리용하는 자동차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한다. 문제는 노소수의 원료인 산업용노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경제가 해외에서의 수출중단으로 혼란에 빠져 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연유 판매소들에서는 노소수가격이 10배이상으로 뛰오르고 그마저도 판매하는 곳이 없어 수천, 수만여대의 물건기재들의 유행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연유차들이었으므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가 혼란상태에 빠지는 등 남조선내부가 이미극한에 빠져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최근 남조선에서 노소수의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노소수는 경유차들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제로서 경유를 리용하는 자동차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한다. 문제는 노소수의 원료인 산업용노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경제가 해외에서의 수출중단으로 혼란에 빠져 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연유 판매소들에서는 노소수가격이 10배이상으로 뛰오르고 그마저도 판매하는 곳이 없어 수천, 수만여대의 물건기재들의 유행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연유차들이었으므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가 혼란상태에 빠지는 등 남조선내부가 이미극한에 빠져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최근 남조선에서 노소수의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노소수는 경유차들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제로서 경유를 리용하는 자동차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한다. 문제는 노소수의 원료인 산업용노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경제가 해외에서의 수출중단으로 혼란에 빠져 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연유 판매소들에서는 노소수가격이 10배이상으로 뛰오르고 그마저도 판매하는 곳이 없어 수천, 수만여대의 물건기재들의 유행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연유차들이었으므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가 혼란상태에 빠지는 등 남조선내부가 이미극한에 빠져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단평 뒤골방 썩덕공론

남조선의 민간정책연구기관인 《국가전략연구원》이 《2022년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국가안보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라는것을 가졌다고 한다. 거기서 논의된 내용이라는것이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 남조선군의 운영체제점검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의 실속있는 발전 등이라고 한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가옥소리라는 속담그대로이다. 《국가전략연구원》이라는것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던자가 원장을 하고 그야말로 군부와 외교안보분야에 종사하던 어중이떠중이들, 말하자면 친미사대와 굴종체제를 염으로 하고 분열과 대결에 기생하던자들이 그 연장으로 만들어낸것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원장이라는자는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떠들면서 《도발원천, 지원력, 지휘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것》,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수 있을것》이라고 설파하던 대결광신자이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을 염으로 삼다못해 동족을 향해 불질하기를 능사로 하던 자들과 《신티프로세스》, 《드레즈덴선언》과 같은 궤변을 들고다니며 지지를 구걸하던것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는가야 변하지 않는가. 가관은 그들이 그 누구의 《능력》과 《전술》에 맞게 남조선군의 대응체제를 점검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한것이다. 돈일만한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늘의 전부인줄 아는 우물안 개구리들의 가련한 울음소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퍼주고 끌어들이던 첨단무장장비들을 갖추었다고 우쭐거리며 《단호한 응징》을 운운하고있으니 손잡이나 장난하던 철없는 아이가 긴칼을 찌다고 빠기는 꼴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외교안보정책을 자문하는것들도 그 토론회라는데 코를 틀어막았다는 점이다. 그들이 윤석열이 떠벌린 《흡수통일》, 전쟁대결의 《대북정책》에 관여했으리라라는것은 두말할것이 없을 것이다. 어쨌든 그 토론회라는것이 북남관계나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결과 긴장격화를 추구하는 보수세대의 모의판이었다는것은 분명하다. 남조선의 동족대결세력들이 군사적, 전략적책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보려고 빌려놓은 뒤골방이라는 장소로 썩덕공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광혁



당국의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때이른 방역완화조치가 불러온 혼란

남조선사회가 때이른 방역완화조치로 인해 사회적혼란에 빠져들고있다고 한다. 방역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하면서 시작한 《단계적일상회복체계》 시행과 관련한 무책임한 방역완화조치가 지금의 엄중한 방역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는 것이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일상회복체계》가 시행되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음식점들의 영업시간제한이 완화되고 모임인원제한이나 마스크착용의무화 등의 방역조치들이 문란해지면서 감염자수와 중증환자수, 사망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단계적일상회복체계》조치를 취한 후 1주일동안 하루평균 양성전염병감염자수는 2천여명, 중증환자수는 370여명, 사망자수는 거의 20명으로서 그 이전수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한편 이 체계를 실시한 후 각종 집회와 시위건수가 대

미국의 검은 마수가 뻗는다

최근 미국의 주요인물들이 남조선에 날아들어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을 만나내 대해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이 환성을 울리고있다고 한다. 그중에는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며 미의회의 상원대표단 그리고 미국언론 《뉴욕 타임스》도 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선거철마다 발작하는 미국의 로파심이 또 도지는 모양이다. 남조선에서 선거철이면 태평양안보에서 입김이 불어오고 검은손이 작용한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민심이 락인한것처럼 태대 남조선정치사에서 권력, 그것은 미국의 《검증》과 《승인》이 있어야 용이하다는것은 《정론》처럼 되어왔다. 2007년 미국이 《선거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남조선 《대선》을 막후조종하였고 2012년에도 미국무성이 《대선》후보들의 《대북, 대미관》을 라진하고 《사상검증작업》을 벌인것으로 하여 여론화된것은 최근년간의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수 있다. 2017년에도 미국무성이 남조선정보원과 경제의 인물들을 만나 《조기대선》과 다 음기 《정권》과의 관계문제를 논의한 사실, 《포린 폴리시》,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미국의 정책연구기관들과 언론들이 남조선정국에 대해 제 구미에 맞게 여론전을 펼친 데도 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뉴스1》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인물들이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을 만나 내 소리를 쥐어짜면 남조선미국간의 《동맹강화》와 경제협력문제라고 한다. 특히 그들은 남조선의 《대선》후보들에게 《동맹강화》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리수단을 위해 남조선의 다음기 권력을 제 마음대로 주무려는 안하무인, 남조선민심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오만방자의 폭행이라고 비평하였다. 《국민이 뽑고 미국이 쓰는 대통령》.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이전 보수 《정권》들의 친미사대적, 노예굴종적인 태도를 보면서 터친 울분이고 분노이다.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미국

《평등사회로 대전환! 불평등세상을 바꾸자》

남조선언론들이 지난 주 주로총의 주도하에 《전태일렬사 정신계승 2021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되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들의 구호는 《평등사회로 대전환! 불평등세상을 바꾸자!》이라고 한다. 《불평등세상을 뒤집는 투쟁》의 시작을 알린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불평등세상을 뒤집고 평등사회를 만들수 있다》고 하면서 《차별과 착취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노동계급은 정권과 자본가들의 탄압과 억압을 뚫고 굴함없이, 물러섬이 없이 전진할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어느 한 발언자는 《기민과 배신의 보수정당에 기대하지 말고 우리 노동자들이 대선을 주도해 평등세상을 만들자》, 《노동자민중이 정적의 주인이 되자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행동공동대표는 《현 정부에서도 사회적불평등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있고》고 하면서 《노동자민중이 앞장서서 사회적불평등을 혁파하고 노동자민중이 승취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5년전 노동자들이 초분혁명의 선봉에 섰듯이 우리가 사회적불평등에 맞서는 초분대행진을 만들자》고 하면서 앞으로 빈민대회, 민중총력대회를 힘차게 성사시킬것이라고 호소하였다. 집회에는 민주로총과 함께 5개 진보정당(로동당, 녹색당, 사회혁명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도 참가하여 경제민주화실현, 사회적소수자 인권보장, 조선반도평화체제실현 등 10가지 선언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한일혁

《경제올가미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미는 어리석은 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주요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있는데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미국의 압력으로 주요기업들이 대미투자확정을 위한 논의를 벌여놓는데 대해 그것은 미국기업들의 배반 버려주는 어리석은것이라고 평하였다. 세계적 인본위기로 수출 주도형의 남조선경제의 취약성이 날이 드러나고있고 하면서 《현 상황에서 미국은 자체로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남조선을 비롯한 반도체생산체들의 군기를 잡으면서 마치 미국의 회사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고있다》며 대미투자 의 확대는 결코 출로가 될수 없다고 신문은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한 경제전문가도 고를 리익을 추구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것 같으면 알속을 다 걸어가서고 빠져나가는것이 미독점자본의 본성이라고 하면서 누가 겨자먹기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려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압박의 일환으로 저물주도의 세계공공재편성에 남조선을 끌어들이려고 압박하는 조건에서 거기에 남만저 융하여나서는것은 스스로를 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지금 남조선정부에서는 외세가 내미는 경제올가미에 자초하여 머리를 깊숙이 들

청년층을 또 속여보려고

남조선에서 여야당세력들이 20, 30대 청년층정렬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공유주택》 방문, 청년간담회진행 등을 편이 벌려놓고 《애로사함을 청취한다》고 하면서 청년들의 호감을 사보려고 예를 쓰는 한편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조직》을 내오고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기본주택공급》을 비롯한 청년정책공약들을 내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있다고 한다. 《국민의 힘》메들은 《청년의 날》을 비롯한 각종 행사들에 참가한다. 야구경기장에 나타나 청년들을 응원한다고 엉너리를 치는가 하면 철면피하게도 《투권과 반칙 근절》, 《공정한 법집행》, 《공정한 입시와 취업기회보장》 등을 요란스레 광고해대며 어떻게 하나 청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20, 30대 청년층은 전체 유권자의 34%를 차지하고있



청년층을 또 속여보려고

며 어느 당이 그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데 따라 다음해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것이라고 보도한것을 감안하면 여야정적세력들이 왜 이런 열연 행렬행진 벌여지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당의 경제적 인 구애놓음은 청년들의 사늘한 배척에 부딪히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연합뉴스》, 《내성신문》 등은 청년층의 대다수가 《폐쇄하고 구태의연한 기성정치인들은 믿을것이 못된다》, 《청년을 정치적으로 리용하는 기득권정치세력, 여도 야도 싫다》는 비난과 경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고 하면서 누구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이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로 된 후 20, 30대의 탈당이 급증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윤석열은 120시간로동제, 부정식품, 전두환호호발언까지 막말을 자

본사기자 김영범

